

세대공감 과거 탐험... '추억공작소·황금박쥐전시관' 인기

국민학교, 다방 등 60~80년대 함평 재현... 황금박쥐상, 금처럼 영원한 관광 명소로 올해도 각광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 함평군의 '추억공작소'와 '황금박쥐전시관'이 세대를 아우르는 감성과 이야기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추억공작소'는 디오라마 기법을 활용해 1960~1980년대 함평의 생활상을 생동감 있게 재현한 전시관으로, 옛 함평국민학교 교실, 다방, 슈퍼마켓, 책방, 극장, 이발관, 대포집 등 그 시절의 생활공간이 그대로 복원돼 있다.

실제 사용됐던 생활용품과 소품이 함께 전시돼 중장년층에게는 향수를, 청소년에게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을 제공하며, 세대 간 공감의 장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추억공작소 입구에는 함평의 상징적인 공간인 '황금박쥐전시관'이 함께 운영돼 보는 즐거움을 더한다.

전시관 중앙에 자리한 황금박쥐상은 대동면 고산봉 일대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붉은박쥐'의 집단 서식을 국내 최초로 확인한 사실을 기념해 제작된 상징물로, 환경 보호에 대한 함평군의 의지를 담은 조형물이다.

황금박쥐상은 발견된 박쥐 수에 맞춰 순금 162kg을 사용해 전면에 5마리, 후면에 1마리로 총 6마리의 황금박쥐가 표현됐으며, 조형물의 원과 기둥에는 은 281kg이 사용됐다.

중앙의 가장 큰 황금박쥐가 들고 있는 벼 이삭과 번개는 풍요와 번영, 그리고 과거와 미래를 잇는 '영원함'을 상징하며, 이를 둘러싼 원에는 파도·우주·심장생 등 자연의 순환과 장수를 의미하는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

조형물 옆에는 제작 후 남은 금과 은으로 만든 '오복포란(五福抱卵)'이 전시돼 있다. '수(壽)·부(富)·강녕(康寧)·유후덕(攸好德)·고종명(考終命)' 등 다섯 가지 복을 상징하는 조형물로, 관람객이 직접



손으로 만지며 행운을 기원할 수 있는 체험 포인트로 사랑받고 있다.

과거에는 높은 가치로 인해 축제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공개됐던 황금박쥐조형물은 2024년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부터 추억공작소로 이전돼 상시 관람이 가능해졌으며, 엑스포공원의 상설 개방과 함께 함평의 대표 생태 상징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황금박쥐를 모티브로 한 함평군 관광 캐릭터 '황박이'도 전시관 앞 팝업스토어에서 관광객을 맞이한다. 황박이 키링, 머그컵, 쿠션, 타이슬링 등 다양한 기념품이 전시·판매되어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더하고,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함평/전광춘 기자

영암군, 11월 영암여행 1+1 특별이벤트 진행

최대 24만원까지 인센티브에 월출페이 1만원 추가

11월, 영암군이 여행객에게 혜택 가득한 가을을 선물한다.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지역 축제 개최와 연계해 11월 한 달 '영암여행 1+1 특별이벤트'로 지역화폐 월출페이 1만원 추가 지급한다.

영암여행 1+1은, 영암을 방문한 관광객이 일정 금액 이상을 소비하면 화차별로 나눠 지역화폐 또는 온라인 영암몰 포인트를 지급하는 맞춤형 관광지원제다.

1인 여행객은 1회 2만5,000원, 2회 3만5,000원, 3회 5만원이고, 2인 이상 팀에게는 최대 24만원까지 혜택이 확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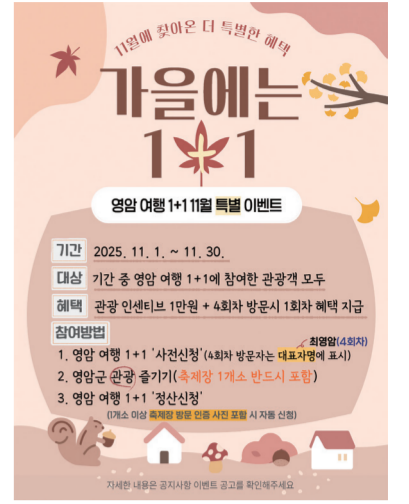
여기에 혜택을 추가해 주는 이번 이벤트는, 관광객들이 영암 주요 축제장을 방문하고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특별이벤트에서는 3회차 인센티브 수령 완료자에게 '재참여 리셋제'를 도입한다.

3회 영암 방문으로 영암여행 1+1 혜택을 모두 받은 관광객이, 다시 영암군을 방문하면 1회차로 간주해 인센티브를 누리게 해준다.

10/30~11/16일 열리는 '2025 월출산국화축제'에서는 '국화 향기 따라 걷는 스탬프투어'도 진행한다.

마한권역, 그라스권역, 어린이권역, 분재전시권역 등 축제장 4개 포인트에서 방문 스탬프 찍기를 완성하면



달마지쌀·감말랭이 등 지역 농특산물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영암군은 이번 특별이벤트가 축제와 관광, 소비를 연결하는 '체류형 관광 모델' 정착, 월출페이 사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영암군에서는 11월 한 달 ▲월출산국화축제(10/30~11/16) ▲한옥문화비엔날레(11/1~16) ▲목재누리페스티벌(11/1~16) ▲전국노래자랑(11/8) ▲마한역사문화제(11/14~15)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국화향 가득한 월출산에서 가족과 연인, 친구가 함께 스탬프 투어를 즐기고, 영암여행 1+1 혜택을 함께 반복해서 즐기는 여행의 기쁨을 영암에서 누리시길 바란다"고 추천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보성군은 지난 29일 보성 열선루공원에서 열린 '보성군 이장단 한마음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해 김철우 보성군수, 김경열 보성군의회 의장, 12개 읍면 이장단과 가족 등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 교류와 협력을 다지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역으로서 자긍심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색소폰 동호회와 보성군립국악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12개 읍면 깃발 퍼포먼스' ▲한마음 높이마당 ▲읍면 대항 노래자랑 및 축하

보성군, 지방자치의 날 맞아 '이장단 한마음대회' 성황

풀뿌리 민주주의 주역들의 단합과 재도약 다짐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유공자 표창은 전라남도지사·보성군수·국회의원 표창 등으로 구성돼, 현장에서 주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모범 이장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행사 하이라이트인 깃발 퍼포먼스에서는 "이순신 장군에게 열두 척의 배가 있었다면, 보성에는 열두 개의 읍면이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 보성의 단합과 재

도약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큰 호응을 얻었다. 보성군이장단협의회 진영호 회장은 "이장은 행정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이자 주민과 군정을 잇는 연결고리"라며, "군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열선루에서 열린 이장단 한마음대회를 통해 이순신 장군의 장계가 떠올랐다"며, "428년 전 나라의 운명이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순간 이순신 장군께 12척의 배가 있었다면 보성에는 12개의 읍면이 있고, 든든한 이장님들이 보성의 12개 읍면을 이끄는 선장들이라"며,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기적'의 정신을 이어받아 12개 읍면 이장님들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 앞으로의 새로운 기적을 함께 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12개 읍면 이장단 간의 유대와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인 마을 자치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성/김운기 기자

무안군, '2025년 무안군 구인·구직 만남의 날' 내달 7일 개최

15개사 직접 현장면접·채용, 우수 인력 채용의 장 마련

전남 무안군(군수 김삼)은 오는 11월 7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글로벌스타트업센터 컨벤션홀에서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직자의 취업확대를 위해 『2025년 무안군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남 서남권 15개 기업이 50여 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참여 기업은 제조·서비스·복지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돼 기업설명회와 함께 직접 현장면접을 진행한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맞춤형 취업상담과 이력서 컨설팅을 진행하며 증명사진 무료 촬영, 이력서 출력 서비스 등 다양한 부대

행사와 함께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은 현재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를 모집 중이며, 참여를 원할 시 무안군청 일자리팀(☎061-450-5733) 또는 무안고용복지센터(☎061-280-0164)로 사전 신청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해향 미래성장과정은 "이번 행사는 구직자에게는 일자리 기회를, 기업에는 맞춤형 인재 채용의 장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제공

도심 속 힐링, 순천만국가정원에서 무료 승마체험 실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한국마사회와 협업해 오는 11월 1일부터 3주간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순천만국가정원 내 스페이스브릿지 하부 동천변에서 승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험은 당일 현장 선착순 접수로 진행하며, 체험비는 무료이다.

키 105cm 이상, 체중 75kg 이하의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매시 정각에 시작해 45분 운영, 15분 휴식 시간으로 진행된다. 승마체험 외에도 관상마 전시와 포도존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운영해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는 동물복지를 고려해 총 4두의 말을 2두씩 교대 운영하며, 말에게는 매시간 15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제공한다. 또한 말 관련 국가자격을 갖춘 인력을 반드시 포함해 운영상의 안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생태자원인 정원과 승마를 융합해 동물과 자연을 매개로 한 자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승마문화의 대중화와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동물자원과(061-749-446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순천시는 2024년 자체 1회, 마사회 협업 1회 등 총 2회의 승마체험을 운영해 1만여 명이 넘는 체험객이 참여한 바 있다. 순천/정성인 기자

나주시보건소, 외국인 근로자 대상 감염병 예방검사 시행

에이즈, 매독 등 혈액매개감염병 검사 통해 건강 보호 앞장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혈액매개감염병 신속 검사를 하며 감염병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나주시보건소(소장 강용근)는 지난 26일 '2025년 전남 외국인 근로자 단계별 의료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나주시 거주 외국인 근로자 139명을 대상으로 에이즈와 매독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신속 검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혈액매개감염병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익명성을 보장해 검사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보건소는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감염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올바른 질병 예방 지식과 건강관리 습관을 확산하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보건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색감처럼**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타성에 찰기 없을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힘들수록 자신을 사랑할 것**

늘 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헛살 같은**

알고 싶고 알고 싶은 **코자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소중함을**

좋은 생각으로 나를 채울 것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이까 **작은 무의미해 보이는 꿈같은 것**

기어스레 생각 **정말 멋진 나를 있는 건데**

평범함의 **더 크게 웃을 것**

이들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일상 **우어도 보는 것.**

마음이 편해진다 **새삼**

멋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공상적인 **평범한 것은**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비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팬잖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엔 다 잘될 테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언제나 우연 **안**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